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수요일, 2018 년 7 월 25 일, 17 시 45 분

레제 병원에서(알바니아)

그라지엘라 마리아 레오니아 베틀리 수녀님 선종

GRAZIELLA SR MARIA LEONIA BETTILI

76 세, 54 년 간 수도생활

교회가 성 야고보 사도 축일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는 복음 환호송을 바치는 가운데, 성부께서는 수녀님을 당신께로 불러 가셨습니다. 1941 년 10 월 8 일에 제비오(VR)에서, 8 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같은 해 10 월 19 일, 팔루의 성 제노네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 신앙으로 교육되었고, 2 차 대전 중, 아버지 레오닐도가 제비오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한 동맹군 포로를 보호해 준 이유로 처형되어 수녀님은 어릴 때부터 희생하는데 단련되었습니다.

그라지엘라는 1962 년 11 월 5 일,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입회하여, 초기 양성을 받았고 1963 년 9 월 2 일에 수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 9 월 3 일에 첫 서원을 하고 즉시 리파비안카(PG)로 파견되어 사목 활동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1973 년에 알바노 라지알레 모원으로 돌아와 학교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1980 년까지 네스트리 레반테(GE)에서, 1980 년부터 1990 년까지는 복음화가 더 필요한 현실에 민감하였기에 피제리아(CZ)와 도리아(CS)에서 활동했습니다. 활기 있고 애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여러 학년들을 가르치는 것부터 전례를 돕는 것까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며 사목 사명에 투신하였습니다. 그라지엘라 수녀님은 그의 양성장들과 그분과 함께 사목활동 했던 사람들로 부터 다음과 같은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단순하고 공동체 생활에 개방되었으며, 좋은 성품과 좋은 실용적인 감각을 가진 분입니다. 청빈과 노동을 사랑했고, 공동체 생활을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성소를 발견하도록 관대하게 헌신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대단히 깊이 있고 헌신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알바니아의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테라 델레 악퀼레”에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식별하는 시기에, 그라지엘라 수녀님은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악사-로마의 수련소에서 지내셨고, 후에는 알바노 라지알레에서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학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판나로(BN)에서 분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1996년에 그라지엘라 수녀님은 첫 번째 그룹인 빠스토렐레 수녀님들과 함께 알바니아, 레제 교구 Ungrej di Kashniet로 떠났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과 그룹원들에게, 사목적 감수성과 수도회와 교회에 대한 사랑을, 관대하게 헌신하며 훌륭히 이 시기를 살아가셨습니다. 구조와 길이 무너진 땅에서 겪는 초기의 고난 속에서도 그라지엘라 수녀님은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버려진 곳에 가기 위해서 큰 용기를 가지고 대면하셨습니다.

그라지엘라 수녀님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17시 45분 심장마비로 마지막 숨을 내 쉬었던, 레제의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 한 때에, 연민과 기쁨에 찬 돌봄을 하면서 22년간 사랑하고 봉사했던 알바니아에서 선종하셨습니다.

형제적 방문 때에 그라지엘라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으나, 기도와 형제적 도움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격려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과 구원하시려는 모든 이들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그라지엘라 수녀님, 수도회와 교회 안에서, 특히 성소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사목적 모성을 관대하게 사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가족의 지향들과, 알바니아의 교회와 수도회의 여정을 당신의 전구에 맡깁니다.

Sr Aminta Sarmiento Puentes
총장

2018년 7월 27일, 서울